

# 전북 미나리의 유망작목 가능성 분석 및 수익성 제고 전략 연구

신희원\*, 유영석\*, 권택\*, 이승혜\*, 이초롱\*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e-mail: ss2659@korea.kr

## Analysis of the Promising Crop Potential of Water Parsley(*Oenanthe javanica*) in Jeonbuk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Farm Household Income

Hee-Won Shin\*, Young-Seok Yu\*, Teag-Kwon\*, Seung-Hye Lee\*, Cho-Rong Lee\*

\*Agricultural Management & Marketing Team, Jeonbuk Stat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준 도매시장 거래물량(kg 환산) 점유율 11.8%를 기록한 주요 미나리 출하 산지로, 평균 거래단가는 2021년 747원/kg에서 2024년 916원/kg으로 22.6% 상승하였다. 이는 같은 해 전국 평균 가격인 822원/kg 대비 11.4%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가격 프리미엄이 확인된다. 하지만 노동집약적 재배, 수요의 계절 편중 등의 문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북 미나리를 유망작목으로 규정하고, 농가소득 실태조사와 AHP(계층분석법) 설문조사를 통해 비용·수익 구조 분석 및 농가가 체감하는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나리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전략작목 전환을 위한 정책·경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연구 배경

국내 농가소득은 2024년 기준 50,597천원으로 집계되었으나, 농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은 9,576천원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하다. 이는 30년 이상 정체 상태를 넘어 10,000천원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다(통계청, 2025). 농가소득의 나머지는 농업외소득(39.8%)과 이전소득(36.0%)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지역 고유의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각 지자체와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특정 작목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전략작목이라 하며,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개선 여지가 있는 작목을 유망작목으로 분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나리는 도매시장 출하량, 가격 동향, 성장 잠재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략작목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유망작목으로 평가된다.

### 2. 전북 미나리 산업 현황

전북 미나리의 위상은 도매시장 경락 데이터를 통해 객관

적으로 확인된다. 농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 경락 데이터(2011~2025년)에 의하면, 2024년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미나리 총 거래량은 약 131,441톤, 거래금액은 약 1,08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전북 산지 출하는 약 15,493톤으로 전국의 11.8%를 점유하였다. 연도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21년 6.5%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9.4%, 2023년 12.1%, 2024년 11.8%, 2025년 12.1%로 회복했으며, 최근 3개년은 12%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 내에서는 전주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전북 산지 도매시장 출하량의 77.3%가 전주시에서 이루어졌으며, 김제시(14.2%), 익산시(6.4%)가 뒤를 잇는다. 출하처는 서울 가락시장(52.6%)과 광주 각화시장(13.8%), 광주 서부시장(11.5%) 등 주요 도매시장을 통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전주 산지 미나리의 평균 거래단가는 2021년 747원/kg에서 2024년 916원/kg으로 22.6% 상승하였으며, 같은 해 전국 평균 822원/kg보다 11.4%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가격 프리미엄이 확인된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96억원에서 142억원으로 47.5% 정도 증가하였다.

### 3. 미나리 출하의 계절적 특성

도매시장 경락 데이터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전북 산지 미나리의 출하는 1~3월(44.2%)과 11~12월(31.3%)에 집중되어 두 시기에 연간 출하의 약 75.5%가 편중되는 구조이다. 이는 동절기와 김장철에 미나리 수요가 집중된다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며, 연중 소득의 불균형과 직결된다.

반면 7~9월에는 출하 비중이 연간 3.1%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 평균 거래단가는 547~1,239원/kg으로 성수기 대비 높게 형성된다. 특히 9월 단가는 1,239원/kg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여 1~3월 평균(약 922원/kg)을 크게 상회한다. 따라서 연중 출하 다각화를 통해 비수기 물량을 확대하면 단가 프리미엄을 활용한 소득 증대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 4. 연구의 필요성

전북 미나리가 가격 프리미엄과 전국 유통망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 기반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동향이 확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온실 현황 및 생산 실적」(KOSIS)에 따르면, 전북의 미나리 재배면적은 2017년 54ha에서 2024년 40ha로 25.9%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장년층 신규 농업인 유입 저조가 맞물려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의 부담을 감당할 인력이 부족해진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두 번째는 수요의 계절 편중 문제이다. 출하의 75% 이상이 동절기와 김장철에 집중되어 연중 안정적 소득 실현이 어려워, 비수기의 높은 단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 가락시장 의존도(52.6%)가 높아 가격 협상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소득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는 전북 지역의 농가 단위 미나리 소득 정보 부재이다. 경상북도·전라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나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전북 지역의 미나리 농가 단위 소득 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개별 농가 수준에서 항목별 수익·비용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며, 어떤 비용 항목이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인지, 어느 작형에서 소득이 높은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 5.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미나리를 유망작목으로 정의하고, 농가소득 실태 파악과 전략적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미

나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북 미나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을 항목별로 조사하여 소득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수익·비용 분석을 통해 수익성의 취약 지점을 규명하고 경영 효율화 방향을 도출한다. 셋째, AHP(계층분석법)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농가가 체감하는 경영 제약요인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북 미나리의 전략작목 전환 가능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정책·경영 개선안을 제시한다.

#### 6. 연구 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미나리를 주요 작목으로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2026년) 소득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활용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온실현황및생산실적(2017~2024년)」,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 경락 데이터(2011~2025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그리고 직접 조사한 농가 소득·경영비 실태 조사 자료이다. AHP 분석은 미나리 농업 경영의 주요 제약요인을 목표층-기준층-대안층의 3단계 계층구조로 구성하는 설문을 실시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다.

#### 7. 기대 효과 및 연구 의의

본 연구가 완료되면, 전북 미나리 농가의 소득 구조와 경영비 구성이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파악되며, 이는 향후 정책 설계와 농가 경영 개선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AHP 분석을 통해 수익성 저해 요인의 우선순위가 도출되면, 제한된 예산과 행정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 투입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는 전북 미나리가 현재의 유망작목 위상을 넘어 도 단위 전략작목으로 공식 지정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농가 소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T. 063-290-6123, F. 063-290-6095 ss2659@korea.kr  
§ 본 성과물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경상과제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